

사회

엔진 부품 빠진 채 출고 '황당한 차'

제네시스 쿠페 엔진오일 체크관 없어 윤활유 새나가



시설 모래주머니 운반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13일 광주시 북구 건설과 직원들이 용봉동 제철자재 작업장에서 눈 치우기가 어려운 구간에 비저할 모래주머니를 차량에 싣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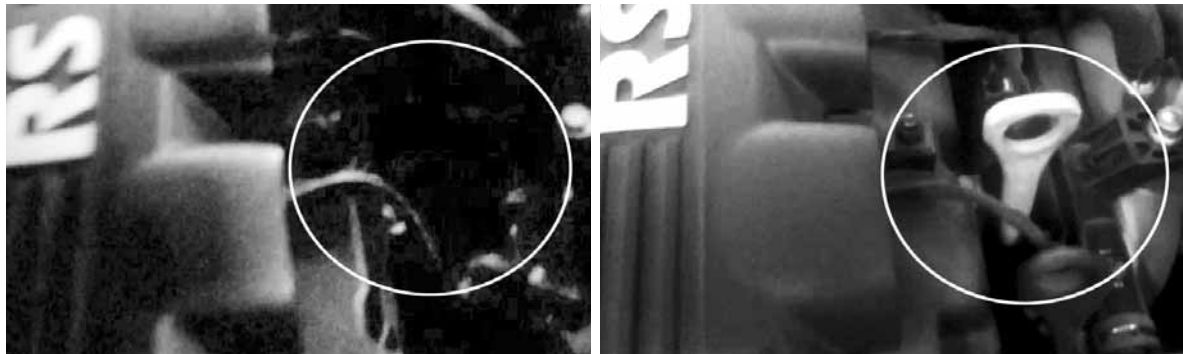
현대측 "새로 장착해줬다"

현대자동차의 한 차종에서 엔진의 중요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채 출고 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광주시 북구 양산동에서 자영업하는 이모(25)씨는 지난달 13일 2500여만원을 주고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쿠페 2.0 차량을 구입했다. 새 차를 구입했다는 기쁨도 잠시, 3주가 지난 이달 초 차에서 심한 소음이 들려왔다. 이상하게 여긴 이씨는 인근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보닛을 열어본 서비스센터직원은 엔진에 붙어있어야 할 점검용 엔진오일 '가이드'(긴 통)와 '레벨 게이지'가 장착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이씨에게 "엔진오일 가이드가 없는 차량은 처음 본다"며 "상태로 보아 출고할 때부터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엔진오일 가이드는 엔진 내 오일 상태와 양을 점검하는 중요 부품이다. 오일 가이드가 빠진 이씨의 차 엔



엔진에 붙어있어야 할 엔진오일 가이드와 레벨게이지가 보이지 않는다(사진 왼쪽). 장착 후 모습.

진에서는 이미 엔진오일이 새어나와 엔진룸 내부가 기름 범벅이 됐다.

자동차 정비센터 등에 따르면 모든 신차는 출고시 각 분야별 검사는 물론, 주행시험까지 3단계의 검사를 거쳐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씨의 차는 기본 부품이 빠진데다 이에 대한 검사마저 이뤄지지 않은 채 인도됐다.

전남대 공대 기계시스템공학부 최병철 교수는 "엔진 오일이 새면 엔진 내부의 피스톤 작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국 엔진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미처 오일 가이드 미장착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주행을 했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씨는 찜찜한 기분에 집 근처 카센터를 돌며 오일 게이지 미장착에 대해 물었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씨는 임시 운행을 위해 현대서비스센터를 찾아 오일 가이드 등을 장착했다. 하지만 수리가 끝나자 현대차서비스센터는 태도를 바꿨다. 현대차측은 "큰 이상이 아니고, 새로 부품을 장착했으니 해결된 문제"라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했다. 이씨는 "이미 엔진이 손상된 만큼 차의 안전성을 믿지 못하겠다"며 엔진교환을 요구했지만 서비스센터에서 보상으로 제시한 것은 엔진오일 교환 쿠폰 2장이 전부였다.

이씨는 "인신한 아내와 장거리 여행을 계획중이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멈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도 싫다"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품이 빠졌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기업의 횡포가 무섭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나원침 (8689) 김종두



여수공무원 횡령액 80억대

여수시청 회계과 직원 김모(47)씨의 공금 횡령액이 76억원에서 80억원 대로 늘었다.

여수시는 13일 "김씨가 횡령한 액수가 당초 검찰이 중간수사결과에서 밝힌 액수보다 4억여원이 늘어난 80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감사원과 함께 김씨가 관여한 전산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4억7000만원을 더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로또 1등 당첨금 43억 1년째 주인없어

○1년 전 로또 시 상등에서 로또를 구입해 1등에 당첨된 주인공이 아직까지 당첨금 43억원을 수령하지 않고 있어 복권기금으로 귀속될 위기.

○13일 (주)나눔로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추첨한 470회차 로또 복권의 1등 당첨자 중 한 명이 43억원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어 복권의 지급기한 다음달 4일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따라 복권 기금으로 귀속할 예정이라는 것. ○470회차의 1등 당첨번호는 '10·16·20·39·41·42'로, 이 복권은 목포시 상동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특임검사팀 '8억 수수' 검사 영장 검토 경찰 "이중 수사 않겠다" ... 갈등 봉합

검찰본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13일 오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8억여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부장검사 김모(51)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받들게까지 김 검사를 조사하고 돌려보낸 뒤 이르면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조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4000만원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원을 각각 수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검찰은 지난 9일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를 시작했다.

특임검사팀은 전날 유 회장 형제를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 검사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대가성 유

무를 추궁했다.

특임검사팀은 이와 관련, 김 검사와 함께 주시부자를 한 검사 3명을 지난 주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편 부장검사 김모(51) 검사의 비리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촉발된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 사태가 곧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이 이중수사로 대립하는 데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13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자 검찰이 경찰에 협의를 제안, 경찰이 이를 수용하고 특임검사사와도 겹치지 않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중 수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경찰은 특임검사가 수사하는 부분은 수사하지 않겠다"면서 "경찰 수사는 김 검사에 대한 다른 비리 의혹 중 특임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남뉴스

캠코대표 등 3명 사전영장 청구

광주지검 "美업체 실제·기술력 검증없이 추진"

검찰이 13일 광주시 한미합작 투자사업(법인명 캠코)과 관련, 이 사업을 주도했던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과 캠코의 대표 김모(56)씨에 대해 광주시에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미국업체로부터 자문 대가로 수익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광주시 자문역을 맡은 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광주시 공무원들이 이 같은 범행에 연관돼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배임죄 등의 혐의도 기소중지하는 등

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에 따르면 670만 달러가 투입된 광주시 한미합작투자사업은 미국업체인 K2AM의 실제·기술력·작업물량 확보 능력 등에 대한 검증과 절차 불무시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김 대표와 자문위원들은 미국업체의 입찰만을 대변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1~7월 사이 600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에스스로 계좌(은행 등 제3자 예탁에 의한 조건부 인출 가능계좌)를 이용하지 않아 투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담보하지 못했고, 지난 7월 미국 기술세스트를 앞두고 70만 달러를 에스스로 계좌로 보내면서 이를 담보로 같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혐의다. 지난

해 말에는 미국업체의 기술력 부족 등으로 계약해지 등을 검토하면서도 미국업체와 면책약정을 체결해 책임을 면하게 해주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또 캠코 사업 관련 광주시의 자문역을 맡은 3D영상업체 대표 박모씨와 드라마·영화기획업체 대표 장모씨는 광주시의 내부 정보를 흘려주고, 유리한 자문을 해준 대가로 미국업체로부터 모두 49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자문을 해준 박씨 등은 거래에 의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현성기자 chadol@kwangju.co.kr

대불산단 가스폭발 5명 사법처리될 듯

영암 대불산단 조선블럭업체 원당중공업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본보 1일자 1·3·6면)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 등 5명이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영암경찰은 13일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민주이엔지 대표 김모(41)씨와 원당중공업 안전관리차장 김모(42)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박모씨와 드라마·영화기획업체 대표 장모씨는 광주시의 내부 정보를 흘려주고, 유리한 자문을 해준 대가로 미국업체로부터 모두 49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자문을 해준 박씨 등은 거래에 의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암=문명선기자 moon@

제10회 광신대학교 전국학생 음악콩쿨 전국 초·중·고등학생 음악 경연대회

2012 Kwangshin Music Competition

· 일 시 2012. 11. 24(토) 오후 1시
· 장 소 광신대학교 콘서트홀, 국제홀
· 접수기간 2012. 11. 1(목) ~ 11. 21(수) 오후 5시까지

■ 참가자격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고등부는 당해년도 졸업자 포함-대학생 제외)(단, 고등부 당해년도 졸업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연부문 ·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각 부문 행사일정은 행사 전날 본 대학 일반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함)

■ 참가신청 · 참가비: 초등부 3만원 / 중·고등부 7만원
· 입금계좌: 광주은행 416-107-052719 (예금주: 최보라)
* 반드시 참가자의 이름, 전공 기재할 것 / 입금후 전화확인 요망.
* 제출된 모든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이 일체 불가함.

■ 접 수 · 인터넷 접수: 광신대 홈페이지 (www.kwangshin.ac.kr)
· 방문접수: 광신대학교 진리관 4층 음악학과 사무실

■ 시 상 · 대 상: 중 고등부 각 부문 1등 입상자 중 가장 우수한 자 (심사결과 90점 미만 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없음)
· 각 부문: 1등, 2등, 3등,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우수지도교사상: 입상자 다수 배출자(고급 상패와 상장)

■ 특 전 *대상 경연 진출자 중 선발함.
· 대 상: 상금 오십만원 (500,000), 고급 상패와 상장
· 최우수상: 상금 삼십만원 (300,000), 고급 상패와 상장
· 우수 상: 상금 이십만원 (200,000), 고급 상패와 상장
· 고등부 입상자: 본교 진학시 장학금 지급(대상/4년, 1등/3년, 2등/2년, 3등/1년)

과 제 곡

부 문	예 선	본 선	
피아노	초등부1-2학년	없음	자유곡 1곡
	초등부3-4학년		
	초등부5-6학년		
성 악	고등부1-2학년	자유곡 1곡	자유곡 1곡 (예선과 다른 곡)
	고등부 3학년		
	초등부1-2학년		
초등부3-4학년			
초등부5-6학년			
관 현 악 (현악부문) (블랫부문) (관악부문)	고등부1-2학년	자유곡 1곡	자유곡 1곡 (예선과 다른 곡)
	고등부 3학년		
	초등부1-2학년		
초등부3-4학년			
초등부5-6학년			
작 곡	고등부	주어진 동기에 의한 3부형식의 피아노곡	

■ 유의사항 · 모든 곡은 암보로 연주할 것.
· 필요한 악기 및 반주자는 출연자가 준비하여야 함.
· 참가자의 기량이 충분히 파악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심사위원장이 연주를 중단시킬 수 있음.

■ 문 의 처 · 광신대학교 음악학과 사무실
전 화 (062) 605-1130, 팩스(062) 571-725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